

중국, 석유 전략비축기지 준공

중국은 동부 Zhejiang성 Ningbo시 Zhenhai에 건설하고 있는 최초의 국가석유전략비축기지를 8월 준공한다고 중국 언론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6월17일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쉬딩밍 에너지국장은 6월16일 Beijing서 열린 <2006년 중국 국제에너지전략 발전 및 투자 서밋>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확정된 4개 국가전략비축기지 가운데 Zhenhai기지는 8월 준공되고 나머지 3개 기지는 차례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4년 석유공급 중단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에너지 안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4개 국가석유전략비축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Zhenhai 비축기지 이외의 3개 비축기지는 Zhejiang성 舟山市 岱山, Shandong성 靑道市 黃島, Liaoning성 大連에 각각 건설 되고 있다.

쉬딩밍 국장은 Zhenhai 비축기지가 언제부터 사용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개혁·발전위원회 장궈바오 부주임은 앞서 국제원유가격이 치솟는 시기에 수입석유를 비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을 통해 2006-10년 석유·천연가스 분야의 발전 속도를 더욱 높이고 국가석유비축기지 확장 및 신규건설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20>